metro®

메트로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제3011호 www.metroseoul.co.kr





한쪽은 폭염주의보… 한쪽은 태풍경보 9일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일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춘천시 서면 서상리 신매저수지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 지역은 태풍경보가 발령됐다.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한 비닐하우스가 강풍으로 찢어져 있다. /뉴시스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확정

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마다 조정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9월 결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25만~35만원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결정된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의 최대 쟁점 사안인 제조사·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9월 전체회의에서 결정난다.

특히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이통사와 제조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방통위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이견도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분리공시 도입, 법적 검토 필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은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였으며 충분히 검토 하자는데 합의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통상 보조금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통칭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장려금과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의 내용이다.

여당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은 "분리공시를 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큰 만큼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제조사가 장려금 공시를 두고 영업기밀 유출로 인한 글로벌 사업을 우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공익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요금·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마케팅비 증가 경영 압박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그 범위는 25만~35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더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공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상황이 바뀌면 상한선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는게 좋을지가 최대 고민이었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의 폭을 고민한 결과 25만~35만원을 두고 6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이통사측은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하한선은 기존 27만원보다 2만원 낮아진데 비해 상한선 35만원을 고려하면 8만원이 올라간 셈"이라며 "지금보다 마케팅비도 증가하고 당연히 경영압박도 생길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이 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하다보니 자연스레 상한선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단말기별, 경쟁사별 보조금 지급도 달라지는 만큼 전략 싸움도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커피믹스 당류 함량 50% 육박

소비자원 12개제품 조사

국내 커피믹스 제품 한 봉지당 당류 함량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섭취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카페인의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믹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당류·지방 함량과 관능검사·원재료 등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류 함량은 한 봉지(약 12g)당 4.9~7.0g(평균 5.7g)으로 50% 수준이었다고 9일 밝혔다.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약 30% 수준이어서 과다 섭취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봉지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로 7.0g이었다. 이마트의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4.9g)는 가장 낮았다.

카페인 함량은 한 봉지당 40.9~77.2㎎(평균 52.2㎎).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 마시면 우리나라 1일 최대 섭취권고량(400㎎)의 약 40%를 섭취하는것이다.

제품별로는 당함량과 반대로 이마트의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가 77.2㎎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가장 낮은 제품은 동서식품의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40.9㎎)다.

열량은 봉지당 평균 53㎉(1일 영양소 기준치 2000㎉의 2.7%), 총지방 함량 1.5g(기준치 51g의 2.9%), 포화지방 함량은 1.4g(기준치 15g의 9.3%)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영양 성분 함량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7개 제품은 하지 않았다. 5개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은 제공하는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다.

특히 '홈플러스 좋은상품 모카골드 커피믹스'는 당류 함량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정영일기자 prms@



'귀하신 몸' 나경원 동작을 출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경원 전 최고위원에게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왜 수사 안 하나"

세월호 특위, 유병언 검거 지연·부실감사 등 질타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법무부·경찰청·감사원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검·경에서 유병언 회장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범죄 사실 확인 전이라도 소재 파악을 해 놓을 수 없었나"라며 "이 엄청난 사건 책임자의 소재 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한 국민 말씀이 많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유병언 부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며 "투입 인력 대비 성과가 미미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을 상대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10년 동안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떠밀고 10년 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며 "힘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꽤 했는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했다"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교복, 싸지니 좋긴한데…



기자 수첩

김 학 철 <생활레저부 기자>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소위 '빅4' 업체가 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교복시장에 경쟁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며 교육부는 교복 상한가를 제시했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국·공립학교에서 의무화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 반면 교복 업계에서는 해당 산업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명분있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교복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넘지 못할 선'을 그어 버린 가격은 대형업체보다 영세한 중소업체에 오히려 더 큰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최저가 입찰 방식에 자금력이 약한 업체는 회사의 존폐를 걸고 달려들어야 한다. 대형 업체야 가격 얼마 내려 입찰에 참여해도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제 때 제 사이즈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보통 신입생의 신체 사이즈 측정은 학교 배정 이후인 2월에 진행된다. 3월 입학식까지 1개의 업체가 모든 학생의 교복을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이는 통상 5·6월부터 공장을 돌려야 내년도 납기를 겨우 맞출 수 있는 실정과 향후 재고 관리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공동구매 평균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상한가 책정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왕 가격을 잡겠다고 나선거라면 공구가보다는 더 싸게 책정했어야 한다. 결국 브랜드 제품의 공구가가 학교가 맺은 업체의 교복값과 같은 수준이라면 교복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만 없어진 것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절 아니다… 사퇴 뜻 없다"

김명수 후보 "뭐라고요?" "30초만 숨 쉴 시간을"

9일 진행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김 후보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뜻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라며 몇 차례 되물어본 뒤 교육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또 강서중학교 윤리교사 재직기간을 묻는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되물은 뒤 "저에게 30초만 숨을 쉴 시간을 달라"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논문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자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제 이름을 뒤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사코 앞에 놔둔 것이다. 제가 임의로 앞에 놔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뉴스&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178명 서명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17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광주 광산을 권은희·수원 팔달 손학규 공천

●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의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하기로 9일 결정했다.

또 경기 수원 병(팔달) 지역에는 손학규 상임고문을 공천하기로 했으며 수원을(권선), 수원 정(영통) 지역은 백혜련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박광온 대변인이 각각 공천됐다.

21~22일 美 항모 참여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7000t)가 참여하는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이 오는 21~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된다.

미국 측에서는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수상함 3척과 항공기 1대, 우리 측에서는 수상함 2척과 항공기 1대, 일본은 수상함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여한다.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올해 13번째

북한이 9일 새벽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되며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스커드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이번 발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루 전인 지난 2일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이후 7일 만이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황해도 태탄 공군기지 부근에서 발사돼 북한 지역을 가로지른 뒤 동해 공해상으로 떨어졌다.

/김민준기자

효성가 '형제의 난'

조석래 회장 차남, 형·동생 횡령 혐의 고발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 사이에서 이권다툼이 일어났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5) 전 ㈜효성 부사장이 형과 동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은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각각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과 조현상(43) 부사장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신동진 역시 부실 계열사 인수 등의 과정에서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은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투자활동이었다"며 "이사로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퇴직한 뒤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김민준기자



총포에… 명품에… 반입제한 수북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9일 오전 인천공항 내 세관 체화창고에 유치된 고가의 해외유명상표 가방, 시계 등 면세범위 초과 물품과 모의총포, 도검, 히말라야 석청 등 반입금지물품을 감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마 오는데 아직 '공사중'

재해위험지구 절반 이상 사업 마무리 못해

풍수해 시즌이 시작됐지만 올해 재해예방공사가 예정된 재해위험지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재해예방사업지구 총 782곳 가운데 64%인 497곳의 공사를 상반기 안에 조기 완공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공사를 우기 전에 마치도록 독려한 결과"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재해예방사업지구 중 285곳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재해예방사업지구 가운데 '재해위험지구'(총 253곳)는 54%가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방재청은 공사 기간이 길어 하반기에 공사를 마칠 예정인 사업지구는 재해에 취약한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예방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한 결과, 여러 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고 일부 지역은 주택 매몰 등 인명 피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평군의 경우 사업장 53곳 중 43곳(81%)이 집중 호우 때 토사 유출과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재청은 "사업조기완공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최대 10% 증액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며 "재해예방사업을 연내에 끝내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

"유엔 권고안 구속력 없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끌어 냈다. /김민준기자

사회 전 분야에서 법률전문가 원해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엉겁결에 대학에 진학했거나 결혼을 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 둔 주부도 있다. 한 학기 30만원대의 착한 등록금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아본다.

Q 법학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법학과는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류문화의 창달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설됐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법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나.

A 법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리와 주요내용을 체계적인 강의와 교과과정으로 공부합니다. 특히 원격교육을 통해 직장생활이나 생업으로 바쁜 사람들에게도 법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 법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국회·금융기관 등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 전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수 있고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문의 02-3668-4590) /윤다혜기자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⑪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큰나래스터디' 회원들이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해 거리 홍보에 나섰다. /방송대 제공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간부 수색

"정치 탄압 의도" 반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황모씨와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여한 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윤다혜기자 ydh@

무료 직업교육생 모집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은 다음달 22일까지 2014년 하반기 직업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야간 6개월, 단기 주간 3개월 과정 등이며 모집학과는 디자인분야, 산업설비분야, 자동차 분야이다.

무료 직업교육과정으로 교육비·교재비·실습비 등의 비용은 모두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문의 02-2092-4700)

‘너구리’로 잠 못 드는 밤

태풍 영향… 서울 올 첫 열대야, 제주 강한 비바람 예상

제주도가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 들어 밤새 주민들이 불안함에 잠을 못이룬 반면, 서울에서는 올 여름 처음으로 열대야가 관측돼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9일 전국이 북상중인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 들어 대부분 흐리거나 비가 내렸다. 특히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집중호우와 강풍이 이어졌다. 너구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 서귀포 남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 상륙해 시속 24km의 속도로 북북동진했다.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0m, 강풍 반경은 450km인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했다.

너구리는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됐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 지역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해 동부·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10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최대 순간 풍속 20~35m/s, 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일부 지방에는 10~25m/s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9일 새벽 최저기온이 25.6℃를 기록한 서울은 올 여름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지난해(15일)보다는 엿새 빨랐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너구리로 인해 남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에 열대야가 발생했다”며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옥상이 정원이네…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35동 옥상에 마련된 꽃밭에서 대학원생들이 금계국과 루드베키아 등 꽃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대가 함께 진행한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 옥상정원은 국제적인 환경상인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급식기준 한번만 위반해도 지정취소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강화

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면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는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민준기자

태광 전 회장 모친 뇌경색 심각

구치소 건의 형집행 정지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태광그룹 전 회장의 모친이 3개월동안 형집행을 정지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서울구치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을 3개월간 정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뇌경색 등으로 고도의 치매가 진행 중인데다 고칼륨혈증, 관상동맥 협착증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무는 3개월 동안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윤다혜기자



한국의 아름다움 즐기는 세계 의전장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창덕궁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장들이 기념 촬영하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결혼식 하객 스펙까지 보자”

‘허세남’ 위세 떨다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물어

돈에 눈이 멀어 부인에게 결혼 전부터 기상천외한 요구를 일삼던 ‘허세남’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물게 됐다.

‘허세남’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고 과시하며 중소기업 오너 딸 B씨와 결혼해 경영권을 물려받으려 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B씨에게 예물·예단으로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현금 7000만원, 유명 브랜드 시계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B씨에게 “결혼식에 초대할 네 친구들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5명만 최종 선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했지만, A씨는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를 따지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A씨는 B씨를 방에 가두고 구타하기도 했다.

그의 만행은 계속 이어졌고 견디지 못한 B씨는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신혼 생활 100여일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9일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 결혼 후에도 B씨를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지적하며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인 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맞았다! 9일 오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에서 ‘스마트 서바이벌’ 종목에 참가한 제천청암학교 하현승 학생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문제를 푼 뒤 정답이 발표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중에도 성매매 영업

‘룸살롱 황제’ 추가 기소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그는 올해 1월 초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 D업소와 B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이씨를 추가 구속기소했다. /김민준기자

영등포구, 어린이 영어캠프

서울시 영등포구는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3~6학년생 80명이며 오는 22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남, 어르신에 견과류 배달

서울시 강남구는 12일 오전 9시 구청아카데미교육장에서 ‘하루한줌 건강더줌 행복주머니 만들기’ 봉사 활동을 펼친다.

구는 다양한 견과류를 주머니 형태로 담아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직접 배달할 예정이다.

송파구, 전립선 무료 검진

서울시 송파구가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거여동 보건지소(양산로5) 1층 교육실에서 ‘전립선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한국전립선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55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쟁의 두 모습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가자 시티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같은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해변의 피서객들이 가자로부터 날아오는 포탄을 피하기 위해 호텔 벽에 붙어있다. /AP 연합뉴스 뉴시스

간디 조각상 세우는 英·과거사 반성 강조 獨

역사 왜곡 일본정부에 일침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를 향한 전 세계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과거사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후손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의 간디 기념관을 방문한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런던의 의회 광장에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조각상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이그 장관은 "간디의 평화 사상과 차별에 대한 저항, 인도를 나아가게 하려는 열망과 비폭력주의는 그의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스본 장관도 "간디는 인도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위인"이라며 "그의 조각상이 영국과 인도의 항구적 우정의 기념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8일 베이징 칭화대학 강연에서 "역사 반성은 옳은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현재 런던 의회 광장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10인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영국 정부도 이날 간디가 남아공에서 인도로 돌아온 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 초에 조각상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조각상 건립을 위해 사지드 자비드 문화언론체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고문단을 구성했다. 건립비용은 기부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AFP통신은 "인도를 식민지배한 영국이 자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친 간디의 조각상을 의회 광장에 세우는 것은 과거사를 기억하는 영국 나름의 방식이자 일종의 사과"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따끔한 충고를 보냈다.

중국 신경보는 메르켈 총리는 베이징 칭화대학 강연에서 "독일이 역사를 직시한 방법은 옳은 것이었으며 이는 후손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고통스러운 반성의 과정을 거쳤고 모든 독일인은 자기가 과거에 한 행위가 혹은 하지 않은 행위가 왜 옳지 않았는가를 반성해야 했다"며 "이것은 하나의 고통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앤젤리나 졸리가 한때 마약중독?

16분짜리 동영상 파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39·**사진**)가 한때 마약중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졸리에게 헤로인을 팔았다는 자칭 마약거래상 프랭클린 메이어가 미국 연예계 웹사이트 '레이더온라인'(RadarOnline)에 졸리가 마약에 취한 모습이 담긴 16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고 9일 보도했다.

메이어는 졸리의 배우생활 초창기인 1990년대 말 수년간 마약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졸리가 일주일에 100 달러가량을 마약 구입에 썼다는 설명이다.

메이어는 동영상을 찍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어느 날 졸리가 마약을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집에 한번 들러달라'고 했다"며 "마침 구입한 비디오 카메라를 휴대하고 졸리의 집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메이어는 "졸리가 자신을 영상에 담아도 좋다고 동의한 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영상에는 놀랄 정도로 마른 체형의 졸리가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아버지 등 가족과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졸리는 2011년 TV에 출연해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보냈지만 살아남았다. 내가 가장 위험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메이어의 이번 폭로는 졸리가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캠페인을 벌인 공로로 지난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서 명예 '데임'(Dame) 작위를 받고 나서 나왔다며 유엔난민기구(UNHCR) 특별대사의 자격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자전거 오래타지 마세요

주 9시간 전립선암 위험 5배

자전거가 전립선에 좋지 않다는 속설이 사실로 입증됐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마크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 50세 이후에 자전거를 매주 9시간 이상 타면 전립선암 위험이 최고 5배까지 높아진다고 9일 보도했다.

건강 자전거 타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52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는 50세 이상 남성도 전립선암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를 타면서 전립선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머 박사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전립선암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전거 타기가 불임, 발기부전과 관계가 없다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분명 다이어트, 심폐 기능, 근육 강화 등에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국명기자

market index <9일>

코스피	2000.50	(-6.16)
코스닥	555.84	(+0.94)
금리(국고채 3년)	2.61	(-0.04)
환율(원·달러)	1012.00	(+0.50)



벌써 햅쌀이… 농협유통이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클럽 양곡코너에서 올해 첫 수확한 여주햅쌀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최대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은 529조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78조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신규 대출보다 상환액이 더 많은 적격대출 등 모기지론 양도분을 빼면 주택담보대출의 월간 증가액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58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7조	688106
		7조	763835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77477
4등	100만원	각조	62705
5등	2만원	각조	363
6등	2000원	각조	09, 12
7등	1000원	각조	4, 9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유심칩에 락 걸고 보안 앱 설치해야

스마트폰 개인정보 지키는 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스마트폰도 컴퓨터처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손진영 기자 son@

높아지는 스마트폰 사용률만큼 보안 위험성도 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에도 백신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무료 백신 프로그램 '알약'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안드로이드'는 악성 앱을 검열하면서 스미싱을 차단해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앱 '폰키퍼'는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과 백신 설치 여부, 악성 앱 침투 등을 점검해준다. 모바일 뱅킹 이용 시 해당 은행에서 권고하는 백신 설치는 필수다. 다만 보안 앱을 너무 많이 깔면 앱끼리 충돌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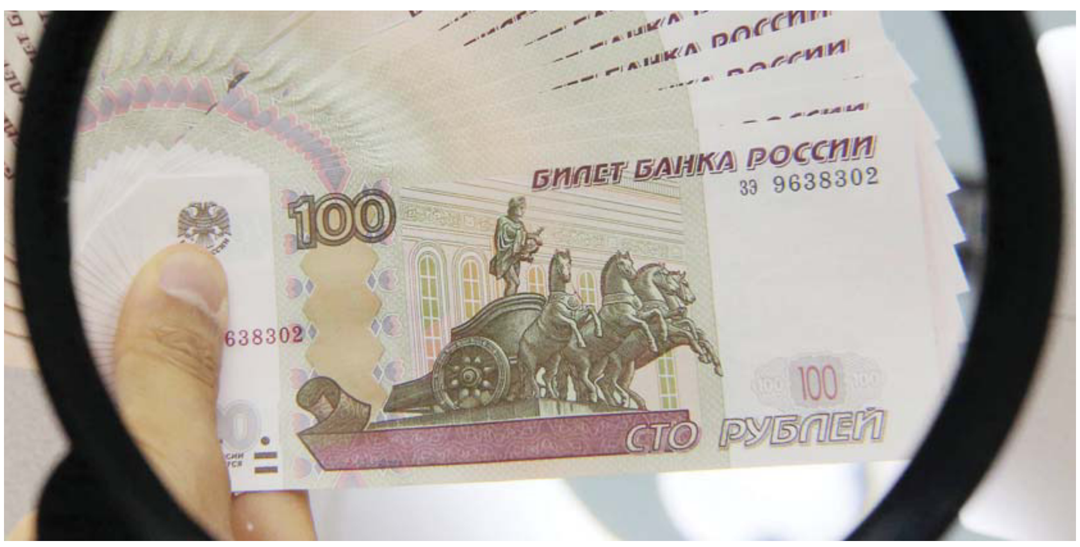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실된 단말기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는 '킬 스위치' 기능을 최신 제품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한 바 있다. 팬택은 베가 넘버6 모델부터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 LG전자는 G3에 킬 스위치를 탑재했다. 킬 스위치는 분실된 단말기를 원격으로 조작해 정보가 도용되기 전에 데이터를 삭제시킬 수 있다.

유심칩 잠금 설정도 유용하다. 단말기 개통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칩이 도용되면 대포폰 또는 온라인 결제 피해가 발생한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유심칩 락'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심칩이 다른 기기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지문 인식과 데이터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경우 환경설정 메뉴 속 보안 항목을 클릭해 암호화와 보안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출처'와 '앱 설치 전 확인'은 출처가 불확실한 앱의 설치를 차단하거나 경고해준다.

포털 사용 시 '로그인 전용 아이디' 이용도 유용하다. 네이버는 기존 아이디 외에 로그인용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외부에 노출된 아이디를 이용해 시도되는 사이버 공격을 차단한다. 로그인 전용 아이디는 로그인 창 바로 위에 있는 '내 정보'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외설 논란 '러시아 100루블 지폐' 러시아 자유민주당 소속의 로만 후디야코프 의원은 100 루블 지폐에 인쇄된 아폴로신 조각상의 겉옷 밑으로 성기가 부분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며 러시아 중앙은행에 도안을 교체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호주 최저 임금

월드컵 참가국 중 1위

호주가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 중 최저임금 순위 1위에 올랐다.

9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한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을 공개한 13개국을 분석한 결과, 호주가 15.2 달러(약 1만5000원)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보다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프랑스가 12.4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속했던 벨기에가 11.7 달러로 3위에 올랐다. 네덜란드(11.0 달러), 영국(9.5 달러), 일본(7.7 달러), 미국(7.1 달러), 스페인(4.9 달러), 그리스(4.5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4.4 달러로 10위에 그쳤다. 포르투갈(3.7 달러), 칠레(2.3 달러), 멕시코(0.6 달러)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13개국 평균 최저임금은 7.3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브라질월드컵 출전국 중 독일은 내년부터 시간당 8.5 유로(약 1만2000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 도입계획이 아직 없다. /이국명기자 kmlee@

시가총액 증가율 SK그룹 1위

올해 상반기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SK그룹의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은 소폭 낮아졌고 주가는 그룹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726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63%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늘며 가장 우수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돌풍을 일으키며 5만원대에 도달한 SK하이닉스 주가가 38.32% 상승했다. SK그룹 시가총액은 11조2301억원(13.80%) 늘어나 증가액 순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CJ그룹이 차지했다. 주력 기업인 CJ와 CJ제일제당의 주가가 각각 21.89%, 26.9% 오르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그룹사의 주가도 13.36% 상승해 전체 시가총액이 1조8583억원 늘어났다.

3위는 LG그룹이다. G3출시 후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된 LG전자가 11.45%의 주가상승률을 보였고,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각각 28.60%, 77.42% 급등했다. LG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3조797억원(4.34%) 증가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전체 시가총액도 줄어들었다.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7조2155억원 가량 감소했다.

코스피는 1.35% 올랐지만 현대차(-0.74%), 두산(-5.59%), POSCO(-8.07%), GS(-10.77%), 한화(-17.13%), 롯데(-18.42%) 등의 그룹 주가는 다소 부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 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높이 각도 조절되는 어린이책상 9일 롯데백화점 동래점 6층 매장에서 아이의 성장에 따라 책상과 의자 높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어린이책상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한·중 훈풍타고 中시장 공략

우리銀, 위안화 청산·결제… 하나·외환銀 법인 통합

금융사들이 한·중 관계의 훈풍을 타고,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두 나라 금융사들이 상대방 국가로 교차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중국의 하나·외환은행 통합법인을 오는 10월 출범시켜 현지 공략을 가속할 계획이다. 통합법인 명칭은 아시아권의 한국계 대표 은행을 의미하는 '한아은행'으로 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통합법인은 중국 내 수백개 외국계 은행 중 16위로 뛰어오를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5위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은행업은 5대 국영은행(공상·건설·중국·농업·교통), 12개 주식제 상업은행(시중은행), 110개 도시 상업은행(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으로 계층화돼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도시 상업은행인 길림은행의 대주주(지분 16.98%)가



된 데 이어 통합법인 출범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확장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현지의 인터넷뱅킹과 직불카드, 런민비 소매영업, 파생상품 거래 라이센스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지점 개설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00억~800억 위안인 한국의 위안화 결제 규모가 청산·결제은행 허용으로 조만간 3000억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우리은행과 교통은행은 기업이 중국에서 원화로, 한국에서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는 '원·위안화 국제결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보험업계도 중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삼성·현대·LIG·한화 등 대형 생·손보사를 중심으로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세워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국내 손보사 중 최초로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해상보험 합작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은 중국 내 합작 법인인 중항삼성인수보험의 지분 제휴로 중국은행을 경영에도 끌어들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하나은행도 무더기 징계

다음달 100여명 전망

하나은행이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과 관련해 내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T ENS 부실 대출과 연루된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저축은행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은 허위 매출채권을 발생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3000여억원을 갚지 않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켰다.

16개 사기 대출 피해 금융사 중 하나은행 피해액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1조926억56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600여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KT ENS에 여신을 제공하는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하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부실이 발생한 시점의 여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KT ENS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 조치안을 만드는 단계"라면서 "하나은행의 경우 부실 대출액이 가장 많고 수년간 이뤄져왔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김종준 행장을 포함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김종준 행장은 주의적 경고 정도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준 행장은 이미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대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징계로 큰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도 내달 대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특성상 내부통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상당수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기자



나도 피아노 연주해볼까 9일 서울 동대문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열린 '취미 악기 판매전'에서 직장인들이 진열된 악기를 연주해 보고 있다. 13일까지 계속되는 행사에서 영창 피아노 신상품은 최대 15%, 진열 상품은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피아노 외에도 드럼 세트 120만원, 기타는 4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 빚 얼마지?" 저축은서 확인 가능

앞으로 지방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서울의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은 은행 영업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란 저축은행간 업무제휴를 통해 거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거래자(대출채무자)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7년 5월 도입된 원격지 발급 서비스는 지난해 3만6643건을 발급됐다.

금감원은 또 보다 많은 고객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통상 7일가량 소요되는 발급 소요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예컨대 채무자가 본인확인 수수료 5000원과 증명서 발급수수료(증명서 발급 저축은행마다 다름)와 함께 발급 신청만 하면 다음날 대출취급 저축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을 접수받은 저축은행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상반기 배당주 투자전략 "통했다"

수익률 성장형 펀드 앞질러

올해 상반기 배당주를 선택한 투자자들은 활짝 웃었다. 최근 배당 활성화나 세제 혜택 등도 배당주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예 국내외 고배당주를 엄선해 직접 투자하는 전략도 추천했다.

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이 넘는 배당주펀드 92개의 수익률은 올 들어 4.63%로 집계됐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저성장·저금리 국면이 고착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배당주 펀드는 성장형 펀드의 수익률을 앞질렀고 증시에서도 배당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배당 유도 정책과 배당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관련 투자 확대를 이끄는 요인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과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한시 판매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배당 등에 대해 기본 소득세율 15.4%만 적용한다.

증권사들은 배당주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국내외 추천 종목을 잇달아 내놨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덕양산업으로 21.2%를 기록했다. 이어 맥쿼리인프라(8.7%)·정상제이엘에스(7.7%)·진양홀딩스(6.9%), YBM시사닷컴(5.5%), 하이트진로(5%) 등이다.

양길영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시장 장악력이 있는 업종별 1위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실적 전망보다는 과거 10년 정도 수익을 낸 이력과 경기침체시 실적 변동폭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M&A보다 신규설립으로

30대 그룹 10년간 늘어난 860개 계열사 중 신설 60%… 승계 용이 원인

대기업 그룹은 최근 10년간 인수합병(M&A)보다 신규설립(분할 포함)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30대 그룹에 편입된 계열사 중 신설 기업은 521개로 M&A(341개)보다 180개나 많았다.

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2013년 말 기준 30대 그룹의 계열사(국내법인 기준) 편입 실태를 조사했다. 2004년 이후 10년간 신규 편입된 계열사 860개 중 519개(60.3%)는 신설로, 341개는 M&A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M&A로 편입된 기업 수가 신설·분할보다 178개가 적었고, 비중으로는 4대6 비율을 보였다.

이는 대주주 일가 경영의 특성상 인수 후 바로 계열사로 편입되는 M&A보다 대주주 지분 취득 등이 용이한 신설을 선호하며 생존율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 그룹 편입 계열사 중 신설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진과 OCI였다. 두 그룹에서 10년간 편입된 계열사는 각각 32개와 16개였고, 이중 각각 28개와 14개가 신설 기업이다. 한진은 물류·운송·레저, OCI는 발전 등 대체로 그룹의 영위 업종과 연관성있는 계열사가 늘었다.

3위는 금융투자사를 대폭 늘린 미래에셋(21개. 80%)이었고, 현대와 대림(각 11개. 78.6%)은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어 두산(13개. 76.5%), 부영(6개. 75%), 코오롱(17개. 73.9%), 삼성(22개. 73.3%), 한화(19개. 73.1%) 등이 '톱 10'을 차지했다. 30대 그룹 중 신설기업 수가 M&A보다 많은 곳은 21개 그룹에 달했다.

반대로 M&A 비중이 높은 곳은 물류와 방송, 게임 업종 등에서 기업을 대거 인수한 CJ로 M&A 기업 수가 37개로 63.8%에 달했다. 이어 현대백화점(14개. 60.9%), 신세계(12개. 60%) 등의 유통 그룹도 M&A 비중이 60%를 넘었다.

1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 인수에서 강세를 보인 LS(30개. 58.8%)와 현대차(20개. 58.8%)는 4, 5위를 차지했다. 롯데(27개. 56.3%), 효성(16개. 55.2%), 동국제강(5개. 50%) 등도 편입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M&A로 이뤄졌다.

박주근 대표는 "30대 그룹 계열사 중 최근 10년간 신설 기업이 M&A보다 많은 것은 2, 3세로의 자산 승계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M&A보다 기업분할 등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여름휴가는 어촌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알뜰폰 "LGU+도 있어요" 홈플러스의 이동통신 브랜드 플러스모바일이 LG유플러스(LGU+) 알뜰폰 서비스를 확대하며 9일 서울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현 부회장 최고과학기술인상

미래부, 11일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시상

'201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기명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시상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단체 등을 통해 35명을 추천 받아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권오현 부회장과 이기명 교수 등 최종 2명을 선정했다.

권 부회장은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 일류화에 성공했으며,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이기명 고등과학원 교수(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는 권 부회장이 다소 기술경쟁력이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CMOS 이미지 센서(CIS), SIM 카드, 모바일 프로세서 등 분야에서 세계 1위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연구자와 경영관리자로 큰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메모리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도 독자적 기술을 적용한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차세대 제품 개발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사운드 통해 브랜드 감성 전한다

기아차 소닉 브랜딩 '놀라운 비상' 공개

기아자동차가 소리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기아차의 브랜드 속성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닉 브랜딩(Sonic Branding)'을 선보인다.

기아차 김창식 부사장은 "브랜드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소리를 디자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고객들과 브랜드 감성을 공유해나가면서 고객 친화적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의 '소닉 브랜딩'은 기아차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개발한 시그니처 사운드를 TV, 인터넷, 모바일 등 고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모든 접점에 통합적으로 적용시켜 고객과의 감성적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한 단계 진화한 브랜드 체험 방식이다.

기아차는 새롭게 선보인 소닉 브랜딩을 'The Rise of Surprise(놀라운 비상)'로 명명했다.

기아차는 시그니처 사운드를 각 고객접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했다. 국내외 TV 광고는 물론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음과 고객센터 통화 대기음 등에 활용하는 동시에 모던락·레게·일렉트로닉·보사노바·아이리시·클래식·뉴에이지 총 7가지 장르로 편곡해 휴대폰 컬러링과 벨소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컬러링·벨소리는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에서 'Experience Kia' 내 '오감 브랜딩' 코너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양산형 전기차 '쏘울 EV'와 미니밴 '올 뉴 카니발'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되는 신차에도 친환경차, 소·중형차, 대형차, SUV 등 차량 특성에 맞는 웰컴/굿바이 사운드, 전장음 등을 개발해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연비 안 나오면 돈 드립니다

푸조 308 최고등급 보장제

푸조(PEUGEOT)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는 지난 30일 아시아 최초로 국내 출시된 뉴 308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 308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는 국내 업계 최초로 진행된다. 8월까지 뉴 308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만km를 주행한 누적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상 16.7km/ℓ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비 차액(리터당 1650원 기준)을 보상해 준다. 보장 연비는 뉴 308의 국내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1만km를 주행하는 동안 트립 컴퓨터상 주행 평균 속도 40km/h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가까운 푸조 전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딜러와 함께 차량에 기록된 평균 연비와 평균 속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 증빙하면 된다. 측정된 평균 속도는 10%의 오차범위까지 허용하고, 등록 후 1년 초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17개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임의택기자


'래미안 용산' 청약 개시 '래미안 용산' 아파트 1·2순위 청약 개시일인 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시민이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공무원 머리 맞댄다

공공정책 서비스 협력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 일하는 방식변화'가 시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정책개발 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19개 주요 정책을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내용이 한층 개선된 사례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발적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도도 설계했다.

여성가족부는 일하는 엄마(워킹맘)를 위해 일·가정 양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용부와 법무부로 나뉘어진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면서 채용 관련 신고 일원화도 추가 검토한다.

/유주영기자 boa@

단지 내 상가가 랜드마크?

입주민 편의성 높이고 활성화까지 '윈윈'

아파트 부속건물 정도로 여겨지던 단지 상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상업시설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사업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단지 상가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세종시에서 선보인 '세종 반도유보라' 아파트 상가에 '카림 애비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와 공동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세계적인 건축가와 작업을 한 경우는 그동안에도 있었다. 하지만 '카림 애비뉴'처럼 단지 전체가 아닌 단지 상가에 대해서만 협업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도건설이 유명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상가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세종 반도유보라'가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만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통상적으로 단지 상가는 입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0~30개 점포 규모로 지어진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매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업 성공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종 반도유보라'처럼 상업시설 비율이 높을 경우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판매하느냐가 사업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반도건설은 단지 상가를 세종시 최초로 스트리트형으로 구성하고, 카림 라시드와 손을 잡아 랜드마크로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세종시 첫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되는 '카림 애비뉴' 조감도.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동과 상가동을 분리해 주거동에는 일반아파트와 같은 쾌적함을 주되, 상가동은 활성화에 초점을 둬 기획했다"며 "상가가 경쟁력을 갖출 경우 분양도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매를 위한 최적의 상품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아브뉴프랑'은 호반건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공을 들인 상가다. 주상복합 '호반 써밋 플레이스'내 들어선 상가지만 아파트 이름보다 '아브뉴 프랑'이라는 명칭이 더 유명할 정도다.

호반건설은 현재 이 상가를 팔지 않고 100%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분양을 하는 게 자금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높은 주택사업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회사는 '판교 아브뉴 프랑'의 성공을 토대로 오는 2015년 광교신도시 신분당선 경기도청역(가칭) 인근에 2호점인 '광교 아브뉴 프랑'을 개점할 계획이다. 판교점의 4배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일반아파트보다는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은 주상복합에서 단지 상가의 고급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주민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상가 활성화를 통한 상권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임대건물이 장마철에 물이 새는 경우 임차인의 조치


■칼럼 박민성 변호사

흔히 장마철에 건물에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신이 소유하여 거주하는 건물일 경우는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건물이 임차한 건물일 경우 임대인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있는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수선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목적물의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건물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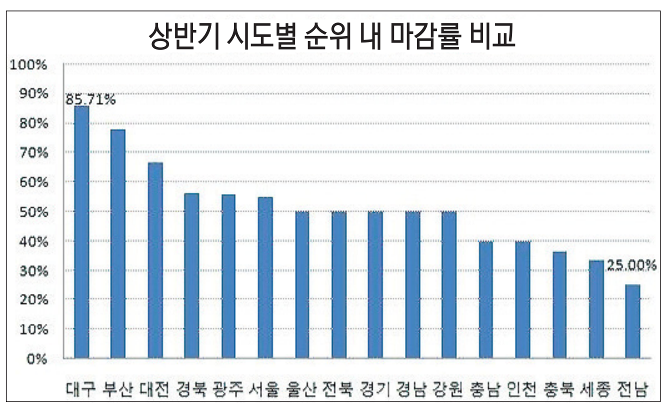
상반기 분양, 영남권 VS 타 지역 온도차

상반기 분양시장은 대구·부산·경북 등 영남권 위주로 강세를 나타내며 그 외 지역과는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상반기 분양 아파트의 순위 내 마감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85.71%를 기록한 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53.9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대구에서는 상반기 총 21개 단지가 공급돼 18곳이 순위 내 마감됐다. 이 중 1순위 마감된 곳만 12개 단지에 이르고, 1만명 이상 청약자가 몰린 사업장도 6곳이나 됐다. 이어 부산이 77.78%를 기록했다. 총 18개 단지가 공급돼 14개 단지가 순위 내에서 주인을 모두 찾았다. 1순위에서 마감된 곳도 11개 사업장에 달하며 상반기 내내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전은 66.67%의 마감률을 보였다. 죽동지구와 관저5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만 3개 단지의 공급이 이뤄졌고, 이 중 2곳이 순위 내 마감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적었고, 그나마



도 1순위 마감 단지가 없어 분양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다.

경북은 총 16곳 중 9곳이 3순위까지 주인을 찾으며, 순위 내 마감률은 56.25%를 나타냈다. 특히 경주시와 경산시에서 분양된 4개 단지가 1순위에서 마감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광주는 9곳 중 5곳이 순위 내 마감됐다. 마감되지 않은 나머지 3개 단지가 10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은 20개 단지가 공급돼 11개가 순위 내 마감을 했다. 마감률은 55.00%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1순위 성공 단지는 '아크로힐스 논현'과 '마곡 힐스테이트'에 불과해 대구·부산과는 대조를 이뤘다.

나머지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순위 내 마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은 16곳 중 4곳에서만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이마저도 모두 혁신도시 내 공급된 물량으로, 나머지 단지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또 그간 인기를 끌었던 세종시도 3곳 중 1곳만 순위 마감을 보였을 뿐이다.

/박선옥기자

"1000만가지 향기를 만들어 드려요"

글로벌 이코노미

독일 맞춤식 향수 업체 '마이 퍼퓸'





"매혹적인 향기를 만들어 드려요."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온라인 주문 제작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판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독일의 향수 업체 '마이 퍼퓸'을 소개했다.

마이 퍼퓸은 '나만의 향수'를 만들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해 향수를 만든다.

고객이 어떤 향기와 분위기를 원하는지, 향수를 선물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업체 측은 성별과 지역에 따라서도 고객이 선호하는 향기가 다르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화사한 꽃향기가 주로 여성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데 중동 지역에서는 남성 향수에도 자주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선택할 수 있는 향기의 종류도 상상을 초월한다. 마이 퍼퓸의 마티 니벨슈츠 대표는 "약 1000만 가지 향의 조합이 가능하다"면서 "사랑하는 연인의 코끝을 자극하는 장미향, 시원한 숲속 공기를 머금은 듯한 우디향 등 지금까지 고객들이 선택한 것은 13만2000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니벨슈츠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전부 들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고객들이 종종 '이상한 향기'를 주문하기 때문이다. 그는 베를린 기차 향기, 가죽 냄새, 심지어 휘발유 냄새를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향수 제작 에피소드를 털어 놓았다.

마이 퍼퓸은 2008년 설립됐다. 창업자인 니벨슈츠는 동생과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꾸렸다. 수중에 있던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을 합쳐 마련한 2만 유로(약 2750만원)가 초기 자본금이었다. 세 사람은 여러가지 아로마 향기를 섞어가며 다양한 향수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서서히 회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3인조 향수 회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 선물용 향수를 불티나게 판매하면서 향수 업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업체 측은 독일 내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섰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향수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직원 수도 8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무리한 해외 투자로 200만 유로의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결국 마이 퍼퓸은 2012년 파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니벨슈츠는 '꿈의 향기'를 담은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동생과 의기투합해 다시 향수 제작을 시작, 최근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워싱턴주 마리화나 판매 개시 미국 워싱턴주에서 오락용 대마초 판매가 시작된 8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시애틀의 한 상점에서 점원의 안내를 받으며 대마초를 고르고 있다. 워싱턴주는 콜로라도주에 이어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두 번째 주다. /AP 연합뉴스

멕시코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브라질 제치고 세계 7위

멕시코가 브라질을 제치고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중남미 자동차 생산국 1위 자리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의 조사 결과, 올 상반기 멕시코의 승용차와 상업용 경차 생산량이 160만대를 기록해 150만대에 그친 브라질을 앞질렀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멕시코는 7% 늘어났으나 브라질은 16.8% 감소했다.

이는 두 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차이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브라질은 경제성장 둔화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 증가 속도가 떨어졌다. 특히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가 경기침체와 채무위기를 겪으면서 수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로 떨어졌다.

반면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워 수출에 주력하는 점이 자동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와 상업용 경차의 80% 가량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70%를 넘는다.

올해 연간 생산량에서도 멕시코가 브라질을 제치고 전 세계 7위에 오를 것으로 IHS는 예측했다. IHS가 전망한 올해 주요국의 승용차와 상업용 경차 생산량은 중국 2280만대, 미국 1150만대, 일본 890만대, 독일 580만대, 한국 450만대, 인도 380만대, 멕시코 320만대, 브라질 310만대, 캐나다·스페인 230만대 등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미국서 사기 당했다"

중국 '괴짜 부자' '유엔 가짜 인증서' 논란

지난달 미국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사서 화제가 됐던 중국의 '괴짜 부자' 천광바오 장쑤황푸재생자원이용유한공사 회장이 미국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천 회장이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점심을 샀던 날 유엔으로부터 '세계 최고 자선가'라는 인증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성도일보 제공

당시 천 회장은 점심 후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중국 재단'의 패트릭 도너휴 회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천 회장이 이후 언론에 공개한 인증서에는 '유엔의 지지 하에 중국 도덕의 롤 모델이자 최고 자선가인 천광바오에게 세계 평화 친선대사의 호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화제가 되자 유엔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유엔의 영문 표기는 '유나이티드 네이션'(United Nation)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United Nations)'"라는 글을 올려 인증서 부여 사실을 간접 부인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은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에서 점심을 샀던 날 한 자원봉사자가 자신에게 도너휴 회장을 소개했고 이후 기부금을 요청해 3만 달러를 줬다는 주장이다. 천 회장은 "3만 달러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회장은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 때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당국으로 '영웅'으로 선정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기행'으로 구설에 올랐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국명기자



한국후지필름의 사진 출력기 '인스탁스 쉐어'.

첫사랑과 갤노트는 닮았다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요즘은 누구나 쉽게 빨리 사진을 찍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기기 덕이다.

게다가 이들 단말기에 들어가는 렌즈나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 사진 관련 부품의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2~3년 전 보급형 디지털카메라보다 되레 나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이유다.

재미있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종이로 출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진 인화 서비스가 알게 모르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신기한 일이다. 디지털, 모바일, 합리성, 경제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태블릿PC나 디지털TV의 넓은 화면이 아닌 인화지로 사진을 본다?

LG전자의 휴대용 사진 출력기 '포켓포토'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블루투스를 켜놓은 채 뽑고 싶은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15초만에 아날로그 스타일의 종이 사진이 나온다.

한국후지필름은 '인스탁스 쉐어'라는 제품을 내놓았다. 프린터 방식인 '포켓포토'의 이미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진인화 방식을 도입한 기기다.

포켓포토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싸지만 시중에 물건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팔리는 모양이다.

휴대용 사진 출력 기기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진 파일을 받아 인화를 한 뒤 다시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디지털 사진 인화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을 신청한 지 6시간 뒤에 도착하기는 하지만 선명함과 해상도에서 비교 우위에 있어 여전히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정부의 공식 문서도 e-북이나 디지털 문서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 사진을 굳이 예전의 종이인화 방식으로 간직하려는 심리는 무엇일까.

그것도 필름이 들어가는 전통 사진기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사진기나 스마트기기로 촬영을 하면서 말이다.

'호모 메모리쿠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추억하는 인간'이다. 인간의 본질 중 하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향수에 젖어드는 것이다.

남자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자들이 중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선생님을 여전히 기억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다.

다시 주위를 살펴보자. 필기용 펜을 장착한 삼성의 인기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시리즈, 최근 속속 출시되는 턴테이블형 MP3플레이어, 레고 블럭 디자인을 채용한 스마트폰 케이스….

첨단 IT기기이거나 관련 제품이지만 아날로그의 향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알을 낳기 전 태어났던 강물로 돌아오는 연어를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중국서 카톡 안 터지는 이유는…

issue&view

홍콩시위 확산 저지 정부 꼼수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중국 교민과 유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인의 필수 모바일 메신저로 자리잡은 카카오톡과 라인을 현지에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카톡만 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제법 용량이 있는 파일도 공짜로 보낼 수 있어 요긴하다. 하지만 현지 거주 교포와 학생들은 1주일째 카톡과 라인을 원활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불통은 이들 기업의 기술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했던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있긴 했다. 그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 강력 대응 ▲일본 침략 미화 공동 대처 등 굵직한 사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SNS 서비스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불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해외언론에서는 중국의 고질병인 '언로 통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심이 요동을 치더라도 초기에 언로를 차단하면 큰 사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계산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알고 보니 지난 1일 오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다. 홍콩은 사실상 중국 광둥성인 만큼 이번 시위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 발발 이후 시민의 집회나 시위에 아주 민감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가 심심찮게 중국에서 끊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카톡, 라인을 불통시켰을 공산이 크다. 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현지의 카톡, 라인 사용자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자유 탄압'이라는 불똥이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산 SNS 브랜드에 튀고 있다.



광대역 LTE 안 되는 지역 찾으면 1년간 요금 면제 KT는 이달 말까지 타사는 광대역 LTE 서비스가 되는데 KT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내면 기지국별로 최초 접수자에게 LTE 완전무한 67 요금제를 1년간 제공하는 '광대역 품질 개런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KT 제공

헌 내비·블랙박스 가져오면 새제품 반값

파인드라이브 보상 이벤트

파인디지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과 파인뷰 블랙박스 최신 모델을 대상으로 보상 판매 이벤트를 연다.

사용중인 내비 또는 블랙박스를 반납하면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파인디지털의 인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파인디지털 제품뿐 아니라 타사 내비나 블랙박스를 사용중인 고객도 참여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제품 별 보상판매 가격은 기본 패키지를 기준으로 ▶iQ 3D 7000v 36만 9000원 → 23만9000원 ▶iQ 3D 5000v 36만9000원 →22만1000원 ▶iQ 3D 5000 BLACK 38만9000원 →25만2000원이다.

또한 파인드라이브의 최신 음성인식 기술이 탑재된 iQ 3D 7000v와 iQ 3D 5000v 제품을 구매하면 와이파이 동글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네이버 스마트폰 메모리 자동 정리 앱

네이버는 9일 쾌적한 모바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이버 클리너 앱'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클리너 앱은 스마트폰 메모리나 불필요한 임시 파일, 앱 삭제 후 남은 파일 등을 정리해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화 서비스다.

특히 사용자들은 화면을 열 때 혹은 일정 시간 간격의 설정 등으로 앱을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밖에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종료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 등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

클리너 앱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성훈기자

휴가 시즌 서머 패키지 선봬

SHILLA STAY

호텔신라의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 동탄'에서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해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머 다이닝(Summer Dining)'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석식 뷔페와 아사히 생맥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탠다드 객실은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호텔신라 수준의 고급 침구를 갖추고 있다.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 즐기는 석식 뷔페는 호텔신라만의 노하우가 담긴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아사히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패키지 가격은 주말(금~일)과 휴가 시즌(7월 25일~8월 10일)에는 24만원, 주중(월~목) 29만원이다. 서머 다이닝 패키지 고객은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신선한 제주산 애플망고를 올린 호텔신라의 시그니처 메뉴 '애플망고 빙수'를 추가 요금을 통해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서머 에디션(Summer Edition)'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서머 비치 타올로 구성돼 있으며 주말(금~일), 휴가 시즌(7월 25일~8월 10일) 18만원, 주중(월~목) 23만원이다. 이 패키지 고객 역시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애플망고 빙수가 제공된다.

▲객실 1박 ▲캐리비안베이 입장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애플망고 빙수 등 포함

권 2매 ▲애플망고 빙수가 포함된 '다이나믹 서머(Dynamic Summer)' 패키지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말(금~일), 휴가 시즌(7월 25일~8월 10일) 21만8000원, 주중(월~목) 26만8000원이다. 모든 패키지는 2인 기준이며, 10%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신라스테이 동탄은 강남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어 도심 가까이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경기도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며 서해안의 제부도나 국화도까지는 1시간 3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올해 10월 2호점인 역삼점을 연다. 신라스테이 역삼점은 서울 강남의 비즈니스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코엑스몰·강남역·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가까워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신라스테이는 2016년까지 마포·서대문·광화문·제주 등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휴가비, 비슷하거나 줄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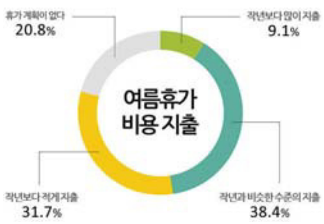
작년보다 많은 책정은 9.1%에 불과

올해 우리 국민의 여름휴가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457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 비용 지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0.1%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비용을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8.4%가 '작년 수준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31.7%는 '작년보다 적게 지출'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작년보다 많은 지출'을 선택한 인원은 9.1%에 불과했으며 20.8%는 휴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작년



수준의지출은전년(31.6%)보다 6.8% 포인트 올랐으며 작년보다 많은 지출을 생각 중인 인원은 2013년(12.3%)보다 3.2% 포인트 줄어 전반적으로 여름휴가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휴가 계획 없음은 경기권(25.3%)과 전라권(20.0%), 60대 이상(32.8%)과 20대(24.4%)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직업·무직(39.8%)과 학생(39.3%) 등도 휴가를 다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재용기자

플래그십 레스토랑 '카페 395' 오픈

18일, 검증된 요리사의 일품메뉴를 뷔페로

밀레니엄 서울힐튼이 호텔의 새로운 플래그십 레스토랑인 '카페 395'를 오는 18일 오픈한다.

'마켓 투 테이블(Market to Table)'을 콘셉트로 하는 카페 395는 기본적으로 뷔페의 큰 틀을 이루는 샐러드, 해산물, 한식 등의 대표 요리를 상시 준비한다.

또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거나 제철인 식재료를 매일 구매해 섹션별로 배치된 전문 요리사들이 개방된 조리 공간(액션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게다가 호텔은 가열이 필요한 모든 음식을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을 통해 일품요리와 동일한 수준의 뷔페요리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위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복수의 총괄 지배인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즉각 수렴키로 했다.

박효남 밀레니엄 서울힐튼 총주방장은 "지난 1년간 수십 차례의 메뉴 수정작업을 거듭한 끝에 최고의 메뉴를 선정했으며 검증된 요리사를 카페 395에 집중 배치해 고객에게 최고의 맛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먹고 보고 체험하는 전통에 물들자!

한정식 코스·공연 등 전통문화 얼이 깃든 한국의 집

최근 한국의 아름다움을 살린 전통문화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 집(관장 김기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문화와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의 집은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1980년 신축된 곳이다. ▲전통음식 ▲전통공연 ▲전통 혼례 등 전통문화 상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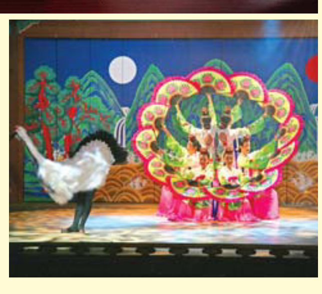
특히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된 한정식 코스는 한국의 전통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직장 문화 회식 등을 위한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또 식사 후에는 ▲부채춤 ▲사물놀이 ▲태평무 등 계절별 테마에 맞춰 준비된 전통공연을 관



람할 수 있다. 영어·일본어·중국어 설명이 덧붙여지는 공연은 하루 2회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 이수자 양서윤 선임 무용수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인 박성진 주역 무용수가 강사로 나서는 '한국 춤 아카데미'도 개설됐다.

이외에도 한국의 집에서는 탈



만들기·한지 공예·매듭 공예 등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도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휴가 '내나라 여행 플러스 카드'로

관광 활성화 위한 카드형 국민관광상품권 출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국민관광상품권인 '내나라 여행 플러스 카드'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리아 트래블즈가 공동 주관하고 BC카드에서 발행·운영하는 플러스 카드는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숙박과 식사는 물론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까지 결제가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다.

플러스 카드는 금액권과 비금액권 두 종으로 판매되며 총 3회까지 충전 가능하다. 금액권의 경우는 5만원, 10만원 등 총 5종으로 발행되



며 비금액권은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재 관광 특구로 지정된 주요 관광지와 서울 도심 관광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 구매 고객에게는 지역 관광 특성에 맞는 할인 쿠폰북이 추가로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차 타고 주문·수령>

새로운 소비형태 ‘드라이브 스루’ 확산

바쁜 일상 속에 신속하게 주문과 결재를 하고 식사·간식·음료 등을 받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부터 제품 수령까지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가 그것이다.

이 상품 구매 방법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92년이다. 세계 외식 업체인 맥도날드가 부산 해운대에 이 방식을 적용한 매장을 열면서부터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드라이브 스루에 말들이 많았다고 한다.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별도의 매장 공간만 허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버거류에서 커피·도넛 등으로 업종 늘어나

하지만 자동차 보급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업체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업종도 다각화돼 버거류 일색에서 도넛이나 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외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개장했다.

이들 업체 중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사진 왼쪽) 운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일 기준으로 358개 매장 중 40%에 달하는 144개 매장을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 70% 이상 매장에 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1997년 서울 명일동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처음 열었던 롯데리아는 현재 37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계열 프랜차이즈인 엔제리너스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나뚜루팝 등이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명일점이 대표 매장으로 전체 매출 중 드라이브 매출이 약 10%를 기록 하고 있다고 한다.

커피전문점인 엔제리너스커피는 숍인숍 매장, 복합매장 등 차별화된 매장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광주 광천에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전체 884개 가운데 9개 점에 불과 하지만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 오픈한 경주점(오른쪽)은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한옥 구조를 채택해 지역 랜드마크로서 사랑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매장은 2012년 드라이브 이용률이 24.4%, 2013년 44.7%로 전년 대비 이용률 약 20% 증가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2014년 2월 동작구 흑석동에 도넛 업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했다.

이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상징하는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으로 일반 매장과 동일했다.

하지만 차량 이동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플세트’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로 일반 매장에 비해 40% 이상 인기가 있다. 이 매장 이용률은 개점 첫 달 19.8%에서 4월 말에는 30%를 차지하며 약 10% 증가했다.

글로벌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 2012년 9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드라이브 스루 1호 매장인 경주보문로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커피업계 최초로 경기도 일산 백석역 인근에 ‘백석역점’을 열었다. 올해에만 5개 매장이 오픈해 현재 650여개 매장 중에서 총 10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선 화상 주문도 가능하다. 42인치 대형 스마트 패널을 통해 바리스타와 얼굴을 마주하고,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다. 스타벅스커피 경주 보문호수점은 올해 1월 오픈했는데 한 달 만에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지역 명소로 떠올랐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오! 해피 데이’ 이벤트

2002년 국내 최초의 무료 종합일간지로 창간해 지난달 25일 지령 3000호를 발행한 메트로신문이 애독자 여러분을 위해 신동와인과 공동으로 2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O! Happy day 이벤트 ①

“가족들과 행복한 날을 로즈마운트 O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보내주세요”

먼저 메트로신문은 호주의 대표 와인 업체인 로즈마운트에서 생산한 ‘로즈마운트 오(Rosemount O) 와인’을 50분께 드립니다. 이 제품은 달콤하고 풍성한 과일향, 산도와 당도의 적절한 조화, 가벼운 탄산과 함께 상쾌한 맛이 특징이며 6.5%의 낮은 알코올 도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응모방법

가족들과 행복한 날을 ‘로즈마운트 O’와 함께하고 싶은 바람을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내 이벤트 응모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응모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당첨자는 7월 16일 개별 통보합니다.

◆O! Happy day 이벤트 ②

“행복한 날 가족과 함께 로즈마운트 O를 마시는 사진을 e-mail로 보내주세요”

가족들과 행복한 날을 ‘로즈마운트 O’와 함께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e메일(metro@metroseoul.co.kr)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두 분께 50만원 상당의 ‘아난티 클럽 글램핑 이용권’을 드립니다.

◆제품 정보

‘로즈마운트 O’(5만4000원)

◆문의

신동와인 02) 794-4729

◆판매처

신동와인 직영점(한남·청담),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점, 신촌점, 목동점, 천호점, 일산점, 부산점, 대구점



metro



‘30분 완판 쿠키’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제니베이커리’를 경인 8개 점포로 확대해 판매한다. 지난달 압구정본점 행사 때 30분 만에 다 팔려 ‘30분 완판 쿠키’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3가지 맛(버터·커피·숏브래드) 상품으로 구성된 ‘현대백화점 한정판 쿠키’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직접 써보고 구입하세요”

뷰티업계 ‘체험 마케팅’ 활발

뷰티업계가 제품을 직접 써보고 구입할 수 있는 ‘체험형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체험 마케팅은 신제품 홍보는 물론 얼리 뷰티어들의 입소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특히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네피트는 신개념 아이라이너 ‘데아 리얼 푸쉬-업 라이너’ 출시를 기념해 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트럭 로드쇼’를 7월 한 달간 벌인다.

‘대나무 숯 코&T존 2-스텝 키트’를 새롭게 선보인 네이처리퍼블릭은 13일까지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한다. 뷰티 커뮤니티 ‘카페 파우더룸’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스크랩 한 뒤 해당 URL과 ‘대나무 숯 코&T존 2-스텝 키트’를 사용해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LG생활건강은 위기의 방판 사업을 ‘체험형’으로 극복하고 나섰다. 현재 15곳인 체험형 방문판매 매장 ‘뷰티 애비뉴’를 연내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pjw@


SCREEN
FINAL 시즌 | 하드코어 섹시 뱀파이어 시리즈
트루블러드7
7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첫방송
SCREEN NEW SERIES
NEW 시즌 | HBO 미스터리 스릴러
레프트오버
7월 11일 금요일 밤 10시 첫방송
tcast
channel
SCREEN
DRAMAcube
CINEf
FOX
FOXlife
FX

"단순함이 좋다"…'청바지에 흰티' 인기



성별 떠나 영원한 로망, 무더위 속 '멋내기' 급증

최근 화려한 바캉스 룩이 매장의 상품 진열창을 메우고 있다. 휴가지에서야 눈에 띄는 옷차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매일 같이 입어야 하는 일상복으로는 부담이 된다. 무더운 날씨에는 화려한 치장보다 단순한 멋으로 패션 감각을 뽐내는 건 어떨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멋스러움을 전달하는 '청바지에 흰티' 스타일은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가 느끼는 가장 매력적인 스타일이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도 화려함보다는 단순한 차림이고 남성들 역시 청바지에 흰티만 입은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마련이다. 하지만 같은 청바지에 흰티 스타일이더라도 멋스러움과 후줄근함은 한 끝 차다.

◆기본기를 잘 닦자 '스키니와 롤업'

기본은 데님이다. 청바지는 함께 착용하는 아이템에 따라 스타일이 천차만별이다. 여성들은 단순한 디자인의 셔츠나 블라우스를 매치하면 도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워싱 처리된 연한 스키니 데님을 흰티와 매치하면 빈티지한 분위기의 전형적인 데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발목을 드러낸 청바지는 좀 더 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스키니 진에 린넨셔츠를 함께 입으면 시원한 옷차림에 깨끗하고 화사한 느낌을 더할 수 있다.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라우스는 여성스러운 청순함을 전달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남자라면 워싱없는 생지데님으로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이때 팬츠 밑단은 롤업하고 남성용 스트랩 샌들인 맨들(맨+샌들)을 함께 매치한다면 젊은 감각을 뽐낼 수 있다. 그래픽 티셔츠는 캐주얼하면서 경쾌한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므로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궁합 좋은 디스트로이드 진과 흰티

보다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디스트로이드 진이나 패치 워크(작은 천 조각을 서로 꿰매 붙인 것)가 더해진 팬츠를 선택해보자.

특히 디스트로이드 진은 올해 대거 등장하며 트렌드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이 아이템 덕분에 데님의 독특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져 흰티 하나만 착용해도 자연스러운 멋을 전달 할 수 있게 됐다.

몸에 붙는 핏의 디스트로이드 진과 헐렁한 느낌의 흰색 상의는 의외로 궁합이 좋다. 민소매 슬리브리스는 캐주얼함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별그대' 세트장서 웨딩·연인촬영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특별 전시 중인 '별에서 온 그대' 세트장에서 드라마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가 오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28일간 열린다.

엑스포마이스와 웨딩전문컨설팅업체 WM(웨딩메모리)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촬영'과 연인들을 위한 '커플 촬영' 두 가지 상품이 150쌍에게 선착순 판매된다.

촬영은 별에서 온 그대의 세트장에서 우연·만남·떨림·그리움·운명·사랑 등 6가지 테마로 진행된 후 30~40페이지의 앨범으로 제작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상담과 예약은 홈페이지(www.weddingmemory.kr) 또는 전화(02-2113-6671, 010-8577-1011)로 가능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알록달록' 우의·장화 이마트는 9일부터 한반도가 슈퍼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장마철 야외에서 활동성을 높여주는 아동용 우의와 장화를 비롯해 각종 캐릭터 우산을 모아 '아동장마용품전'을 오는 16일까지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알록달록한 고무장화는 9900원부터 다양한 가격대에 판매하고, 우의와 우산은 8900원부터 1만4900원까지다. /이마트 제공

이대목동병원 '주말 보톡스 클리닉' 개소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 신경과가 '주말 보톡스 클리닉'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보톡스는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안면경련 ▲반측안면경련 ▲근긴장이상증 등 이상운동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보톡스 주사는 뇌졸중 후 후유증으로 생기는 강직, 난치성 만성 두통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병원은 이런 보톡스 활용을 확대하고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법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클리닉을 마련했다. 환자들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경규 신경과 교수는 "주말 보톡스 클리닉 개소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강강술래 "가족외식 알뜰하게 즐기세요"

10일까지 상계·늘봄농원점 '먹은만큼 포장'
길벗출판 '캠핑 주말여행 코스북' 증정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육류가격 상승에 부담이 큰 고객들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파격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10일까지 술래양념·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 상품을 각각 주문한 양만큼 무료로 포장해 준다.

늘봄농원점도 같은 기간 술래·강강양념/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 상품을 역시 각각 먹은 양만큼 포장해 준다.

또, 상계와 늘봄농원점은 한돈 양념구이(500g·2인분)와 돼지양념구이(500g·2인분) 포장상품을 행사기간 동안 각각 1만6000원과 1만2000원에 1인분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흥점도 이달 11일까지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 포장해 준다. (매장 진행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 및 정식류 제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이달 22일까지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박스(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88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도서출판 길벗의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캠핑을 120% 즐길 수 있도록 도보·자동차 추천 여행코스 등을 소개한 '캠핑 주말여행 코스북', 프랑스 대표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말하는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prms@

데뷔 5년차 그룹 맞아?

컴백 대란 속 남다른 존재감 드러낸 비스트

데뷔 5년차 그룹 비스트가 초심으로 돌아갔다.

여섯 번째 미니앨범 '굿럭'을 발표한 비스트는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가요계에 돌아왔다. 노련한 퍼포먼스와 절제된 리듬 속에 묻어나는 비스트의 무대에서는 데뷔 5년차 그룹이라기 보다 신선함이 묻어난다. 음악성과 퍼포먼스, 비주얼까지 삼박자를 고루갖춘 이들의 행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덕분에 비스트는 앨범 공개 후 음반뿐만 아니라 음원차트에서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두준·기광·동운·요섭·준형·현승.

"음악성·퍼포먼스·비주얼 삼박자 갖춰… 새로운 시도 도전"

◆ 초심 잃지 않아야

'픽션' '쇼크' '섀도우' '아름다운 밤이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스트 멤버들은 인터뷰 중 거듭 "초심을 잃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이틀곡 '굿 럭'의 작사를 맡은 용준형은 "제목을 정하고 곡을 만들었다. 춤추기 좋은 노래를 만들자는 생각이 가장 컸다"며 "그동안 편안하게 무대를 즐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보여 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음악방송에서 '굿럭'의 무대를 보면 비스트 특유의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 라인을 담고 있으면서도 파워풀한 안무가 가미됐다.

윤두준은 "데뷔 후 처음으로 해외 안무가와 작업을 했다. 음악방송과 뮤직비디에 등장하는 안무는 40%정도 삭제된 것"이라며 "처음에 안무를 가지고 왔을때 동선이 없을 정도로 가득차있었다. K-팝 정서에 맞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현승은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였다. 칼 군무보다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지만 신인으로 돌아간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 용준형·이기광 앨범 작업 참여

용준형은 앨범을 낼 때 마다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비스트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적 색깔에 성숙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멤버 이기광도 '히스토리'의 작사·작곡에 참여해 뮤지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넓혔다.

용준형은 "프로듀서로서 부담감은 없다. 하고 싶은 음악을 멤버들과 함께해서 좋고 이제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며 "훌륭한 분들이 곡을 주기 때문에 앨범에 내 곡이 수록되는 과정은 치열하다. 동등하게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경쟁했다"고 말했다.

작사·작곡에 참여한 이기광은 "그동안 꾸준히 작사·작곡 공부를 해왔다. 그러던 중 좋은 형님과 같이 작업할 기회가 생겼다. 사실 앨범에서 곡이 하나가 비기도 했었다(웃음).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다행히 멤버들에게 가이드만 따서 불러줬을 때 반응이 좋아 만장일치로 싣게 됐다"고 탄생비화를 밝혔다.

◆ 5년차 징크스 '이상무'

언제부턴가 가요계에는 '아이돌 데뷔 5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돌 그룹이 5년을 못 넘긴다는 이른바 '마의 5년' 징크스를 두고 한말이다. 실제 2005년 데뷔한 SS501은 20010년 앨범 발매 후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또 동방신기 역시 2004년 데뷔해 2009년 소속사와 분쟁으로 멤버가 갈라졌다.

이와관련해 비스트는 "5년차 징크스 이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두준은 "그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모르겠다. 멤버간 불화도 없고, 회사와 계약도 많이 남아있다(웃음)"고 말했다.

양요섭은 "신기하게 멤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의견차가 있으면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징크스는 없을 것"이라며 "개인 활동보다 완전체 활동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콘서트 계획에 대해 "초기 기획단계다. 소속사와 협의 중이다"며 "이번 앨범에 담긴 노래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다. 콘서트는 언제나 가수의 꿈이니까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최송이



‘발연기’ 가수 옛말… 명품배우 각광

김재중·정은지 등 아이돌 출신 드라마 활약 돋보여


김재중


정은지

‘발연기’ ‘연기력 논란’ ‘가수출신 연기자’.

과거 아이돌이 드라마에 출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던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돌이 드라마를 망친다는 건 옛말이 됐다. 이젠 ‘가수 출신 연기자’란 꼬리표가 없어도 될 정도로 폭넓은 연기를 보이며 오히려 긴장감 넘치는 극의 전개를 이끌어 가고 있다.

MBC 월화드라마 ‘트라이앵글’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첫 방송 이후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는 ‘트라이앵글’에는 가수 출연 연기자가 대거 투입됐다. JYJ의 김재중과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이다.

극 중 삼류 양아치 장동철로 등장하는 김재중은 첫 회부터 강렬한 키스신을 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은 채 거리를 질주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 냉정하게 외면하는 모습과 때로는 찌질함을 드러내는 내면 연기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임시완은 싸늘하고 계산적인 성격의 장동우 역을 맡아 김재중과 상반된 매력을 보이고 있다.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티아라 지연이 깜짝 합류해 안정적인 연기로 합격점을 받았다.

KBS2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은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정은지는 극중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은 최춘희 역을 맡아 매회 막힘없는 노래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연기돌로서 자신의 장점인 음악을 전면에 내세워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섰다. 지난 2012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구수한 사투리에 코믹한 생활연기로 열연했던 그녀가 불과 2년 만에 ‘트로트의 연인’으로 지상파 주연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처럼 아이돌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니지 멤버 도희도 오는 10월 방영을 앞두고 있는 ‘칸타빌레 로망스’(가제)에 캐스팅되었다. 도희는 ‘칸타빌레 로망스’에서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일본 원작 사쿠라 역을 맡았다. 자신의 몸집만 한 크기의 악기를 들고 다니는 인물로 바이올린 수집에 미쳐있는 아버지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음악을 그만두려는 인물이다.

올 상반기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리모콘을 사수한 연기돌이 하반기에도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헨리 신곡 ‘판타스틱’ 티저 공개

엑소 찬열·인피니트 호야 앨범 참여

가수 헨리(사진)가 타이틀 곡 ‘판타스틱’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헨리는 9일 공식 홈페이지와 SM타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판타스틱’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또 새 미니앨범 수록곡 6곡 하이라이트 메들리 음원도 선보였다.

이번 미니앨범에는 타이틀 곡 ‘판타스틱’을 비롯해 총 6곡의 다양한 장르가 수록됐다. 헨리가 결성한 작곡팀 노이즈뱅크의 곡도 4곡 담겼다. 특히 엑소 찬열과 인피니트 호야, SM루키즈 슬기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헨리와 호흡을 맞췄다.

한편 헨리의 미니앨범 2집은 오는 14일 발매된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8시 멜론, 삼성뮤직,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 음원을 선공개한다.

/양성운기자





‘단발머리’ 빌보드 K팝 뮤비 톱8

AOA, 걸그룹 중 유일

걸그룹 AOA(사진)의 ‘단발머리’ 뮤직비디오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K-팝 뮤비 차트 톱 8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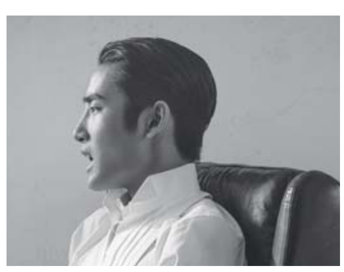
최근 미국 빌보드는 6월 한 달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톱 8을 선정해 발표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AOA의 ‘단발머리’는 싸이의 ‘행오버’와 태양의 ‘눈, 코, 입’, 비스트의 ‘굿 럭’ 등 쟁쟁한 남성 가수들 사이에서 걸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AOA ‘단발머리’는 앞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 주요 SNS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집계되는 소셜 차트 주간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유튜브에 업로드 된 수백여 개의 ‘단발머리’ 커버 댄스 영상으로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며 화제를 모았다.

‘단발머리’는 신나는 멜로디와 따라 하기 쉬운 후렴구, 트렌드를 반영한 가사로 국내에서도 이미 ‘여름 핫 시즌송’으로 떠올랐다.

/양성운기자

박재정 파격 19금 신고식



‘슈퍼스타K 5’ 우승자 박재정(사진)이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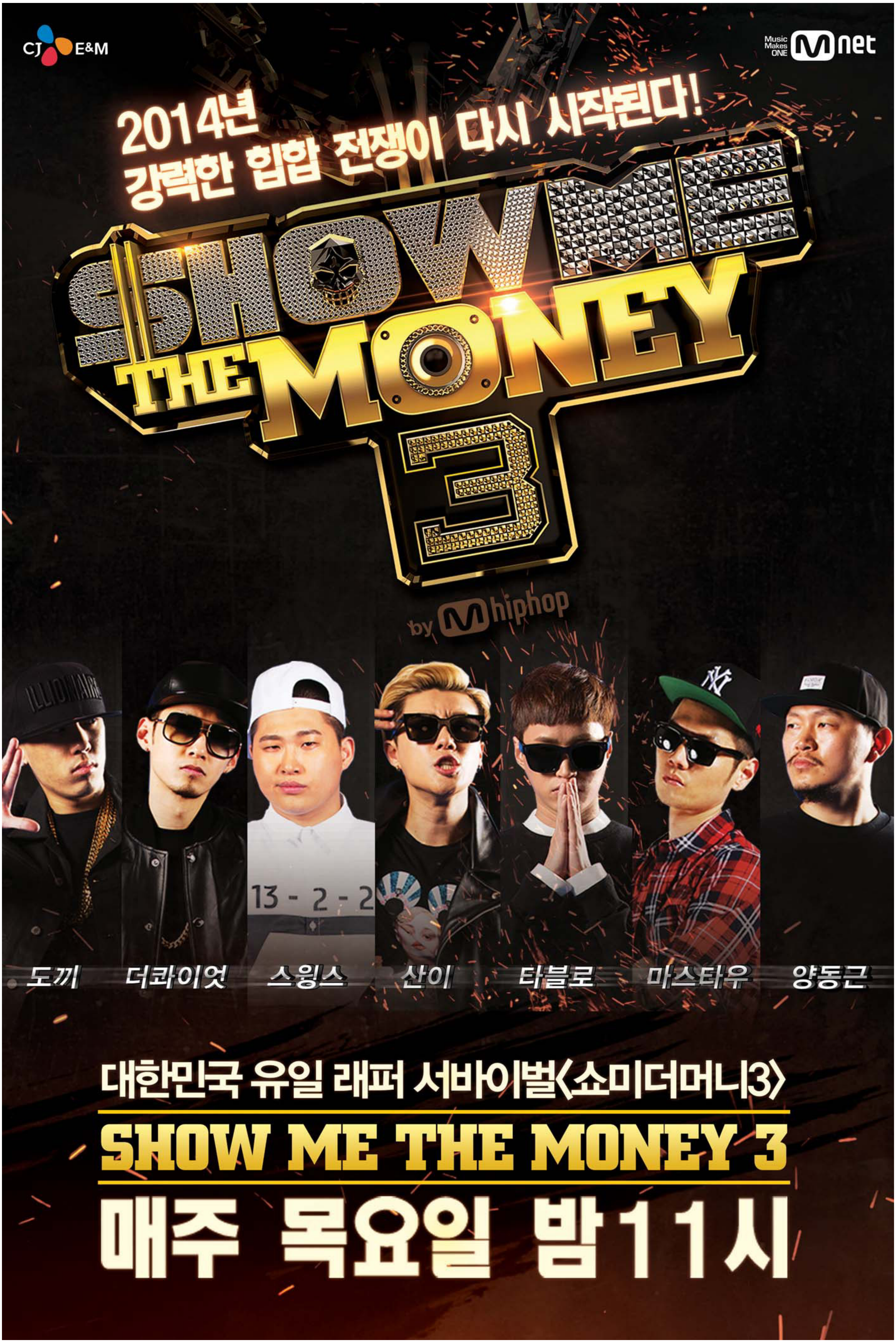
박재정은 오는 17일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텝 원’을 발매하고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진다.

9일 공개된 박재정의 데뷔 트레일러에는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모습이 공개됐다. 흑백 배경 속 포마드 헤어를 한 박재정이 등장하고 함께 수갑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여자, 전신 타투를 한 여인 등이 등장해 박재정의 변신을 예고했다. 한 편의 스릴러 영화를 연상케하는 박재정의 데뷔 트레일러 영상은 여성 출연자의 전신 타투 노출로 19금 심의 판정을 받았다.

‘슈퍼스타K’ 사상 최연소 우승자인 박재정이 긴 시간 데뷔 앨범을 준비한 만큼 타이틀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세련된 보이스와 가창력을 보유한 박재정의 색다른 파격 행보와 변신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박재정은 17일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CJ E&M
Music Makes ONE Mnet
2014년
강력한 힙합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SHOW ME THE MONEY 3
by M hiphop
도끼
더콰이엇
스윙스
산이
타블로
마스타우
양동근
대한민국 유일 래퍼 서바이벌〈쇼미더머니3〉
SHOW ME THE MONEY 3
매주 목요일 밤11시

월화수목극 1위 모르겠는데요?

시청률 고만고만… 매체 환경변화·계절·완성도 원인

시작부터 1위를 놓치지 않은 드라마가 있다. 그러나 1위를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동 시간대 경쟁 드라마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계절과 매체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재미가 없기 때문에 본 방송을 제 시간에 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8일 종영한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은 시청률 12.2%(TNmS·전국·이하 동일 기준)로 전회보다 1%포인트 상승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첫 회 시청률 9.4%보다 2.8%포인트 높은 수치다. 수목드라마의 경우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가 1위다. 종영을 4회 앞두고 지난 16회가 11.2%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 10시 드라마는 약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왕좌 없는 승부를 벌이고 있다. 월화드라마의 경우 지난 8일 MBC '트라이앵글'(8.6%)·KBS2 '트로트의 연인'(7.2%)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수목드라마는 지난 3일 KBS2 '조선총잡이'가 8.3%,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6%의 시청률을 보였다.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종석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승기


SBS 월화극 '닥터이방인' 박해진

이에 한 드라마 관계자는 "IPTV나 다운로드 등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며 "지상파는 여전히 시청률에 민감하지만 매체 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청률 조사는 TV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청률 순위와 대중이 반응하는 화제성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셈이다.

10시 드라마가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계절을 꼽기도 한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의 한 제작자는 "여름에는 밤이 길고 휴가도 있다"며 "시청자가 시간 맞춰 방송을 보는 게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콘텐츠가 재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너포위'와 '닥터이방인'은 캐스팅의 힘으로 1위를 한다는 평이다. 이종석·이승기 등 탄탄한 팬층을 가진 배우들 덕을 보고 있다. '닥터 이방인'의 시청자 대부분은 "이종석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끝까지 봤다"라는 불만을 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보면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당시 드라마 전체 최고 시청률(22.3%)을 기록했다. 작품은 탄탄한 구성과 빠른 전개, 배우들의 호연이 어우러져 현재까지 수작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작품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추세다"며 "케이블 드라마의 경우 시청률은 낮아도 체감 인기는 상당하다. 신선하고 재미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닉쿤 '일과 이분의 일의 여름'

닉쿤 중국서 배우 입지 구축

그룹 2PM 멤버 닉쿤이 중국에서 새로운 드라마 스타로 떠올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동방위성TV에서 방영된 '일과 이분의 일의 여름'에서 닉쿤은 미국계 중국인 캐릭터 장호 역을 맡아 여행지에서 만난 첫 사랑을 찾아 중국으로 유학오게 된 순정파 청년을 연기했다.

특히 '일과 이분의 일의 여름'은 중국내 주요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방영돼 4억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오락 검색 순위 1위와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에서 비디오 검색 순위 3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드라마 방영기간 내내 중국 내 영상 사이트 점유율 80% 이상인 '요쿠투도우'서 중국 드라마 부문 지속적 1위도 유지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닉쿤은 드라마 방영 이후 중국내 동영상과 연예인 분석 수치사이트인 브이링키지 집계에서 꾸준히 중국 배우 순위에 랭크돼 중국 드라마계의 라이징 스타가 됐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닉쿤이 중국에서 드라마 '일과 이분의 일의 여름'으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새로운 드라마 스타로 등극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미스에이 멤버 지아와 중국인 배우 위대훈도 '일과 이분의 일의 여름'에 닉쿤과 함께 출연해 호평을 받았다. /양성운기자 ysw@

젠틀한 사장님 알고보니 소시오패스?

신성록·정인기 전작 강렬한 이미지가 되레 재미

다양한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에게 고정된 이미지는 독이다. 강렬한 캐릭터는 대중에게 각인되기 쉽고 배우는 차기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배우 신성록과 정인기는 다르다. 현재 온화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지만 전작의 소시오패스와 연쇄살인범 캐릭터를 호연으로 극복하며 오히려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배우 신성록은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에서 능청스러운 소속사 사장 조근우 역을 맡았다. 전작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소시오패스 이재경을 연기했다. "온몸에 마비가 올 거야"라는 대사가 유행할 정도로 역할은 화제가 됐다.

'트로트의 연인' 조근우는 유머있는 이재경이다. 대사는 엉뚱하고 코믹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웃기는 코믹 연기는 호평을 받고 있다. 드라마 시청자는 "신성록이 정은지를 보고 웃는데 돌변할 거 같아요"라며 작품을 보는 재미를 전하기도 한다.

신성록은 "소시오패스 역할이 강렬했는지 눈을 뜨기만 해도 무섭다고 한다"며 "대중과 가까워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종영한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의 정인기도 같은 경우다. 지난달 종영한 tvN 금토극 '갑동이'에서 연쇄 살인범 갑동이로 출연했다. 정체가 밝혀지자 다중인격인 척하며 섬뜩한 표정연기를 해 안방을 압도했다는 평가다.

'닥터 이방인'에선 대통령을 꿈꾸는 장석주(천호진) 총리의 하수인 김태술을 연기했다. 오직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인물이다. 김태술의 존재감은 극 후반에 드러났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계획이 연이어 실패하자 총리는 김태술을 의심했고 폭언을 한다. 헌신한 김태술은 박훈(이종석)을 도우며 총리를 배신한다. '갑동이'에 비하면 그의 배신은 온화한 편이었다. 그러나 '갑동이'와 김태술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정인기가 갑동이로 변신하면 재미 있겠다"라는 시청 소감이 있다. 의외의 볼거리 선사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극을 풍성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전효진기자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신성록


tvN 금토극 '갑동이' 정인기



‘부당거래’ 감독·배우 ‘맞손’

류승완·황정민 ‘베테랑’ 4개월 촬영 끝… 유아인도 합류

영화 ‘부당거래’의 류승완 감독과 황정민이 의기투합한 ‘베테랑’이 4개월간의 촬영을 끝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서도철(황정민)과 조태오(유아인)가 대결하는 장면으로 100여 명의 출연진이 동원된 가운데 격렬한 액션과 대규모 자동차 추격신이 펼쳐졌다.

4개월여 동안 동고동락한 감독과 배우, 스태프는 촬영이 끝나는 순간 서로 격려하고 아쉬움을 나눴다. 류승완 감독은 “훌륭하고 유쾌하게 임해준 배우들, 최선을 다해준 스태프, 특히 큰 부상을 하고도 자신이 찍은 장면에 대해 걱정해준 스턴트 팀 등 ‘베테랑’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촬영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류 감독은 또 “심지어 날씨도 우리 편이었다. 이토록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촬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후반작업을 열심히 해서 멋진 영화로 완성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

‘베테랑’은 눈 앞에 있어도 잡을 수 없는 놈을 쫓는 베테랑 광역수사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해 716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액션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의 신작이다.

류 감독의 ‘부당거래’에 출연해 흥행을 일군 황정민은 강한 신념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수사를 밀어붙이는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 역을 맡았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완득이’ ‘깡철이’에서 이 시대 청춘의 생생한 모습을 연기했고, 최근 드라마 ‘밀회’에서 섹시하면서도 성숙한 매력을 보여줬던 유아인은 인정사정 없이 서늘한 성격의 재벌 3세 조태오 역을 맡았다.

조태오의 오른팔 최상무는 유해진, 서도철의 조력자 오 팀장은 오달수가 연기했다. 정웅인·정만식·진경·장윤주·유인영·김시후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높인다. ‘베테랑’은 후반 작업을 거쳐 2015년 개봉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19금’ 애니 파격 알코올 팬미팅

‘발광하는 현대사’ 공개 기념 제작진과 대화

국내 최초 VOD 전용 ‘19금’ 애니메이션으로 주목받는 ‘발광하는 현대사’가 제작진과 팬이 함께 하는 알코올 팬미팅을 마련한다.

알코올 팬미팅은 온라인 신청자 중 15쌍을 선발해 16일 합정동의 캣츠비펍에서 개최되며 강도하 작가, 연상호 프로듀서, 홍덕표 감독이 팬들과 직접 만난다.

‘발광하는 현대사’는 2012년 연재 당시 파격적인 내용과 적나라한 묘사로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모은 강도하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돼지의 왕’ ‘사이비’ 등으로 성인 애니메이션계에 독보적인 위치에 선 연상호 프로듀서, 애니메이션계의 신성 홍덕표 감독이 원작의 매력을 고스란히 옮겼다.

10일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은 국내 최초 VOD 전용 19금 애니메이션답게 술과 함께 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술과 함께 작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발광하는 현대사’의 플랫폼 유통을 맡은 콘텐츠판다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시사회가 진행되지 않는 이 작품의 성격상 기존의 콘텐츠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발광하는 현대사’는 32세 남자 현대와 27세 여자 민주의 위험하고도 아찔한 사랑 이야기로, IPTV·인터넷·디지털케이블TV·모바일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10일 공개된다.

/유순호기자

명품 애니 ‘터키’ 여름극장가 사냥

‘슈렉’ ‘쿵푸팬더2’ 제작진 참여… 해외 호평

애니메이션 ‘터키’가 이달 말 여름방학 흥행 대열에 합류한다.

‘터키’는 칠면조 특공대의 식탁 탈출 이야기를 담았다. 추수감사절 요리가 되기 전 겨우 살아남은 운 좋은 칠면조 레지와 위대한 칠면조로부터 특명을 받은 제이크, 두 칠면조를 주인공으로 한다. 레지와 제이크는 명절 메뉴에서 칠면조 요리를 없애기 위해 칠면조특공대를 결성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추수감사절 전으로 돌아간 둘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200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호튼’의 지미 헤이워드 감독이 연출하고, ‘슈렉’의 성공을 이끈 애론 워너 프로듀서, ‘쿵푸팬더2’ ‘장화신은 고양이’ 등의 음악을 담당했던 도미니크 르위스가 제작에 참여했다.

지미 헤이워드 감독은 각본과 프로듀싱을 맡은 스캇 모지어와 아카데미 수상자인 책임 프로듀서 애론 워너를 직접 영입했다.

‘터키’의 제작사 릴FX의 대표 데이빗 로스는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독특한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작품에 전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픽사와 블루 스카이에서 10년 이상 애니메이션을 작업했던 지미 헤이워드 감독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며 “‘터키’는 기술적으로 아름답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국 개봉 당시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의 극찬을 받았다. 다채로운 재미와 생생한 액션, 유쾌한 이야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도 웃게 한다는 평가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탄탄한 연출력으로 호평받은 이 작품은 오는 31일 전문 성우들의 목소리로 국내 관객과 만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애니메이션 ‘터키’ /누리픽쳐스 제공

박소영 개인전 ‘…코스모스’ 개최



한국 화가 박소영(사진)의 개인전 ‘네이처 인 더 코스모스’가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회동 60에서 열린다.

작가 박소영은 2009년부터 대나무와 매화를 포도 형상으로 보이는 원과 조합해 우주와 자연을 주제로 꾸준히 작업했다. 하늘과 우주, 시간을 의미하는 원 안에 생명체들이 번성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대나무와 매화는 한국화의 전통적인 소재다. 그러나 박 작가는 자연의 상징으로 선택해 작품을 완성했다. 앞서 그는 인간의 관점으로 우주와 자연을 바라봤다. 이번 전시회에선 자연과의 공존을 시도했고 방문객은 박 작가의 여유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 인 더 코스모스’전을 기획한 김정민 가회동60 디렉터는 “전통 장지에 은은한 수묵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바라만 보아도 풍요롭고 평화롭다”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공명하는 작품을 통해 잠시라도 마음 치유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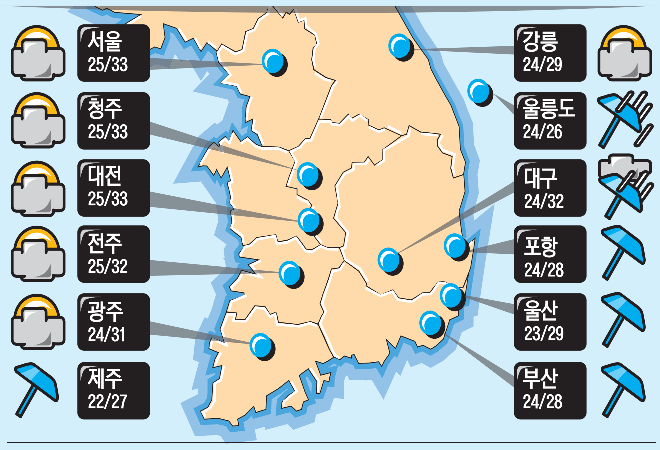
아르테 미술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한 이번 전시는 한국 화가 30인의 ‘2014 한국화, 힐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인사동과 북촌한옥마을 거리를 따라 개인전과 특별전 형식으로 작품이 전시된다.

/전효진기자

날씨

7/10木 일출시각 05:19 일몰시각 19: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3			
3		5	7					4
	2			6				
	9	6		3			5	7
4	1			8		6	2	
				7			1	
2					1	8		5
			3			4	6	

	2				1			
			7	2				
1		5		4		8		6
	5			9			3	
		9	4		8	7		
	8			5			4	
6		2		8		3		5
				3	6			
			1				6	

스도쿠 정답

1	4	7	9	2	3	5	8	6
3	6	5	7	1	8	2	9	4
9	2	8	4	6	5	7	3	1
8	9	6	2	3	4	1	5	7
5	7	2	1	9	6	3	4	8
4	1	3	5	8	7	6	2	9
6	5	4	8	7	2	9	1	3
2	3	9	6	4	1	8	7	5
7	8	1	3	5	9	4	6	2

4	2	3	8	6	1	5	9	7
8	9	6	7	2	5	4	1	3
1	7	5	3	4	9	8	2	6
2	5	4	6	9	7	1	3	8
3	6	9	4	1	8	7	5	2
7	8	1	2	5	3	6	4	9
6	1	2	9	8	4	3	7	5
9	4	7	5	3	6	2	8	1
5	3	8	1	7	2	9	6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칼국수는 왜 여름이 맛있을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한여름 햇볕이 하얗게 내리쬐는 날이나, 장마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는 햇감자 큼직하게 썰어 넣고 송송 썬 애호박으로 고명을 얹은 칼국수가 입맛을 당긴다. 윗도리 흠뻑 젖도록 땀 뻘뻘 흘리며 칼국수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더위가 땀과 함께 씻겨 나간 것처럼 몸과 마음마저 개운해 진다. 그런데 칼국수는 왜 여름이 맛있을까?

요즘은 계절의 구분이 없지만 칼국수는 전통적으로 여름에 먹는 별미였다. 지금은 겨울별미였던 냉면과 자리바꿈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여름에 뜨거운 칼국수를 먹는 것은 이열치열의 전통과 함께 칼국수가 밀가루 음식인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여름 별식으로 밀가루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여름철에 칼국수, 수제비를 먹었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기름에 지진 밀가루 부침개를 별미로 친다.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속담에 "여름 국수, 겨울 만두"라고 했는데 쌀밥보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는 중국 북방에서도, 여름이면 특히 더 국수를 즐겨 먹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왜 여름에 밀가루 음식을 더 찾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 의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동의보감을 비롯해 동양의 의학서들은 하나 같이 밀은 성질이 차가운 곡식으로 번열(煩熱),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신열, 무더위 때문에 생기는 열기를 없애준다고 했다. 동시에 조갈(燥渴), 입안이 마르는 갈증을 해소해주고 소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더위를 식혀주고 갈증을 없애주는데다 소화에도 좋다니 더운 여름날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이다.

밀은 또 가을에 심고, 겨울에 자라서 봄에 이삭이 패고 여름에 추수를 하는 곡물이니까 밀가루 음식은 갓 추수한 여름이 제일 맛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밀보다는 보리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밀가루를 '진(眞)가루'라고 부를 정도로 밀이 귀했다. 그러니 오랜 세월 여름에 어쩌다 먹는 칼국수나 수제비는 여름철 진미로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했을 듯싶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연하에 가난한 남친, 결혼할수 있나 애틋함 있겠지만 결정 빨리 하도록

Q

뽀끔밥 여자 80년 11월 12일 양력 오후 1시 30분
남자 82년 5월 1일 양력 / 80년 1월 19일 양력

계속 신문을 통해 만나다가 오랜만에 상담 글 올립니다. 이전에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2년 전쯤?). 연하인 불우하고 가난한 남친을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은 가망이 없을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오히려 남친이 조건 때문인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난 지 오래되지 않기도 했지만요. 남자친구와 잠시 다툼이 있던 때에 주변의 성화로 소개팅한 남자 분은 평범한 분이고 그래서 참 훌륭한 좋은 분인데 아무래도 마음이 생기지 않네요. 제가 키가 작은데 남자분이 저만큼 작으셔서 그 부분이 걸리는 건지….

A 2014년 음력6월 지나면서 연하남자친구와 서원해집니다. 해로하는 궁합은 사주팔자 여덟 글자에서 천간(天干; 4글자로 구성)과 지지(地支; 4글자로 구성)에서 서로 생(生)하거나 합(合)을 이뤄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가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오행을 서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명조(사주구조)자체가 흉함이 없이 깨끗해야 하겠지요. 연분이 되어 결혼을 해도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 가정을 보존하고 건실하게 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더 중요 한 것은 서로 운의 흐름이 관, 재성(官, 財星; 직업군, 재물)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면 귀한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짝을 만나기도 힘들겠으나 아무래도 서로에게 향한 좋은 조건이 더 많은 사람을 택하려고 궁합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년 전 다른 분의 사주였으나 연상 남자에 대하여 꾸밈없고 근면함은 있으나 남자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원진살이 있어 곁에 있느니만 못하고 때로는 비정상의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관망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남자는 다정다감하며 착실하여 가정적으로 책임감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가 비슷하지만 그중에도 연하의 남자가 애틋함은 많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현재 마음이 크게 내키지 않아 쉽게 혼인이 안 되고 38세가 돼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음력9월지나면서 즉 양력 10월이 되면서 연상 남자에게 평범해도 원만한 여자를 만나는 운세가 옵니다. 그러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음력8월 까지는 본인의 마음결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군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0일 (음 6월 1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녀 충고 귀담아 들어라. **60년생** 뜻밖에 칭찬받을 일이 생긴다. **72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 주지 말라. **84년생** 못마땅해도 대세 따라야 후회가 없다.



49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61년생** 산이 높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올라보라. **73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85년생** 기회가 왔으니 망설이지 말라.



50년생 한결같은 친구 있어 살맛나는구나. **62년생** 남의 일로 바빠진다. **74년생** 영업사원과 자영업자는 호재가 잇따라 야호~. **86년생** 이성문제는 어려움 따른다.



51년생 적당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63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할 것. **75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혼쭐이 난다. **8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될 듯.



52년생 힘들어도 모험은 금물~. **64년생** 중도를 지키면 반사이익 얻는다. **76년생** 주변의 충고 겸허히 수용할 것. **88년생** 방심하면 엉뚱한 실수로 코너 몰린다.



53년생 황당한 불청객이 찾아온다. **65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77년생** 직장인은 나를 알면 실패는 없다. **89년생** 지켜보는 사람 많으니 언행 조심할 것.



42년생 익숙하지 않는 일은 삼가라. **54년생** 배우자 존중해야 대접 받는다. **66년생** 불리할 땐 물러서는 게 현명~. **78년생** 맡은 일은 성과가 좋아 박수 쏟아진다.



43년생 집안에 모처럼 훈풍이 분다. **55년생** 급해도 무리한 진행은 금물~. **67년생** 모임에 가면 기분상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극 고민할 것.



44년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노력할 것. **56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빠진다. **68년생** 대접 받으려면 말을 아끼는 게 최선~. **80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즐겁다.



45년생 반가운 벗과 회포를 푼다. **57년생** 양보할 일은 화끈하게 하라. **69년생** 식당이나 술집 경영자는 의외 행운 따른다. **8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46년생 배우자 의견 따르면 만사 편안~. **58년생** 모처럼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70년생**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아라. **82년생** 좋은 일에 연관되어 즐겁다.



4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9년생** 외로운데 벗이 술병을 들고 오는구나. **71년생** 뜻밖에 귀한 손님 대접할 일 생긴다. **83년생**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서 유쾌~.

삼바축구 치욕… 64년 만의 대재앙

독일에 1-7 완패 4강 탈락… 1950년 '마라카낭의 비극' 재현


브라질과 독일의 준결승 경기 후 양팀 선수들이 대조적인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남아 있다. /AP 연합뉴스

세계 축구 최강인 브라질이 월드컵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망신을 당했다.

브라질은 9일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에 1-7로 대패했다. 월드컵 준결승 사상 최다 점수 차 패배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전 최다 점수 차 경기는 1930년과 1950년 대회 등에서 세 차례 나왔던 6-1이었다. 현대 축구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반면 독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에서 브라질에 0-2로 패한 아픔과 1999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0-4로 브라질 상대 최다골 패배를 당했던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다.

전차군단은 전반 11분 토마스 뮐러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질주했다. 전반 29분까지 무려 5골을 몰아쳤다. 전반 23분에는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호나우두(브라질·15골)의 기록을 넘는 역대 월드컵 최다 골을 터뜨렸다. 1분 뒤에 토니 크로스가 필리프 람의 패스를 왼발 슛으로 차넣었고, 크로스는 2분 뒤 추가골을 또 넣었다.

독일은 전반 29분 사미 케디라가 메주트 외칠의 도움을 받아 팀의 다섯 번째 골을 꽂았다.

척추골절로 나오지 못한 네이마르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티아구 시우바의 공백을 정신력으로 이겨내겠다던 브라질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무차별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다.

후반 8분 파울리뉴 등 브라질은 몇차례 슛을 날렸지만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에 모두 막혔다. 오히려 후반에 교체 투입된 안드레 쉬를레에게 후반 24분과 34분 두 골을 추가로 내주며 홈팬들을 경악케 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시간 오스카르가 1골을 따라가는 데 그쳤다.

개최국으로서 여섯 번째 우승의 영광을 바라던 브라질 축구팬들은 이날 '미네이랑의 비극'을 마주하게 됐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벌어졌던 '마라카낭의 비극'에 버금가는 축구 역사의 치욕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당시 우승을 눈앞에 뒀던 브라질은 경기 종료 10분 전 역전 결승골을 얻어맞고 우루과이에 1-2로 패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는 무려 17만 명이 몰렸고,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2명은 심장마비로, 2명은 권총 자살로 사망했다. 브라질 전국에 조기가 게양됐고 폭동이 이어졌다.

이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 관중은 64년 만에 찾아온 대재앙에 오열했고, 일찌감치 경기장을 떠나기도 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류현진 7실점 5패 최악 투구

美 언론 "한 편의 '호러쇼'였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사진)이 최악의 투구로 '호러쇼'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류현진은 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2⅓이닝 10안타 7실점을 기록했다. 아메리칸리그 타율 1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타선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다저스가 결국 5-14로 져 류현진이 패전투수가 됐다. 올 시즌 17경기에 나와 9승 5패가 됐다. 지난달 2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9승째를 올린 뒤 세 경기 연속 10승 사냥에 실패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06에서 3.65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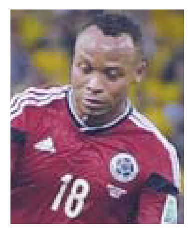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최악의 투구로 대패의 빌미를 제공한 류현진에 대해 "타이거스의 공격과 류현진의 난조가 엮이면서 순식간에 흐름이 뒤틀린 오늘 경기는 한편의 공포극(horror show)을 만드는 데 충분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1회말까지 5-0으로 앞서다가 2회말에 5실점하며 동점을 허용하고, 3회 들어서는 역전당해 패전투수가 됐다.

LA 타임스는 "다저스가 초반 5-0으로 앞서 나갔다"며 "확실히 이길 수 있었다. 지켰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류현진은 2이닝 동안에만 8안타를 맞고 5실점을 내주는 최악의 기록에 괴로워했다"며 "그를 위해 잘 돌아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양성운기자 ysw@

콜롬비아, 수니가 보호령



네이마르의 허리를 가격해 브라질 패배에 원인을 제공한 콜롬비아 수비수 후안 카밀로 수니가(29·SSC 나폴리·사진)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수니가가 브라질의 한 폭력조직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수니가가 나폴리에서 활동할 때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을 이탈리아 당국에 요청했다.

브라질이 4강전에서 대패하자 축구팬들은 SNS 등에 수니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수니가의 소속 클럽인 나폴리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니가는 악의가 없는 반칙과 불운한 결과 때문에 많은 비난과 온갖 종류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수니가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어 콜롬비아의 조별리그 탈락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에스코바르는 귀국하고 나서 자책골을 원망하는 축구 팬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양성운기자

프로축구 전적 9일

전남	3	1	경남

△ 득점 = 김인한①(전6분·경남) 안용우③(전11분) 이종호⑦⑧(전25분·후6분·이상 전남)

전북	1	1	제주

△ 득점 = 송진형③(전39분·제주) 카이오③(후34분·전북)

상주	2	0	부산

△ 득점 = 권순형①(후35분) 이상호④(후49분·이상 상주)

포항	0	0	서울

수원	3	2	울산

△ 득점 = 로저①(전21분) 산토스③(전25분) 김은선①(후19분·이상 수원) 이재원(후12분) 고창현(후23분·이상 울산)

인천	1	1	성남

△ 득점 = 이효균②(후4분·인천) 황의조②(후23분·성남)

프로야구 전적 9일

■ 잠실

두산	000	000	020	0	2
L G	100	001	000	1	3

△ 승리투수 = 봉중근(1승 3패 16세이브) △ 패전투수 = 정재훈(1승 2패 1세이브)

■ 문학

KIA	110	000	001	3
S K	110	031	12X	9

△ 승리투수 = 박민호(1승 2패) △ 패전투수 = 김진우(2승 3패) △ 홈런 = 김주찬 5, 6호(1회1점, 9회1점·KIA)

■ 대구

롯데	100	000	003	4
삼성	110	002	01X	5

△ 승리투수 = 장원삼(9승 2패) △ 세이브투수 = 임창용(4승 1패 17세이브) △ 패전투수 = 송승준(4승 9패) △ 홈런 = 나바로 19호(1회1점·삼성) 박종윤 6호(9회2점·롯데)

■ 청주

넥센	170	122	000	13
한화	000	001	000	1

△ 승리투수 = 소사(4승 2패) △ 패전투수 = 이태양(3승 4패) △ 홈런 = 서건창 5호(1회1점) 강정호 26호(2회3점) 이택근 11호(5회2점·이상 넥센)

Seoul Metro

Art Awards 2014

제7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공모분야 한국화, 서양화, 사진
작품주제 자유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은 가산점 부여)
접수기간 예선 – 2014.8.29(금)~9.05(금)
본선 – 2014.9.25(목)~10.02(목)
접수방법 예선 – 온라인 접수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본선 – 방문 접수 (예선심사 통과 작품에 한함)
시상내역 대상 – 1명, 500만원 (매입상). 상장 및 상패
최우수상 – 3명 (분야별 1명), 각 200만원 (매입상), 상장 및 상패
우수상 – 3명 (분야별 1명), 각 100만원 (매입상), 상장 및 상패
※ 매입수상작품은 공사 재산으로 귀속 (동의 불가능시 수상 제한)
※ 작품규격, 출품수량, 출품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참조

문의안내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운영사무국 02-515-7227

후 원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서울메트로

대관 안내 서울메트로미술관(경복궁역), 혜화전시관(혜화역)을 수시 대관합니다.
서울메트로 문화한마당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culture) 참조 02-6110-5091